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성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사망, 빈곤, 이혼, 학대, 방임, 미혼모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한 가족 해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나 가정에서 분리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0).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1980년대 이후에야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 친화적 보호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변화되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아동에 대해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형 시설보호가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Pecora, Whittaker, Maluccio, Bath, & Plotnick, 2000)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시설보호가 감소하고 가정보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0).

위탁보호 중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중앙

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 이후 위탁 아동의 수가 늘어나 2010년 12월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 받고 있는 위탁 아동 수가 16,300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가정위탁 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의 가정위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는데, 가정위탁의 실태와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허남순, 2000; 배태순, 2003; 박현선, 2004; 허남순, 이혜원, 2006)와 위탁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양심영, 2003; 곽연숙, 2007; 김진숙, 2007; 최영, 2007; 노충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 2008; 김민정, 2008; 신건철, 2010; 김은정, 김형모 2010; 이혜영, 이혜원, 2011)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외 위탁가정의 양육 환경에 대한 연구(이송이, 1999)와 위탁가정의 특성에 대한 연구(김민정, 2007), 위탁 아동의 가족 지각에 관한 연구(김윤미, 이경숙, 박진아, 이권희, 진미경, 2008), 위탁 아동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민윤희, 2010)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나 외부 관찰자에 의해 보고된 위탁 아동의 외적 행동이나 문제에 대한 연구로 치중되어 있다. 위탁 아동의 개별적인 내적 표상을 다룬 질적 연구도 최근 일부 진행되었는데, 그 예로는 위탁 아동의 애착 유형과 가족 지각에 관한 연구(김윤미, 이경숙, 박진아, 이권희, 진미경, 2008)와 위탁 유형별로 내적 표상을 군집화하여 비교한 연구(민성혜, 신혜원, 2006; 신혜원, 민성혜, 2008)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탁 아동의 개별적인 심리 특성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위탁 아동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내적 표상을 아동의 언어적·비언어

적인 담화 특성으로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정신적 표상은 아동 자신의 반응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인지적 도식(Bowlby, 1973)과 함께 아동의 감정, 정서적 상태, 정서적 의미구성 현상 등을 나타내주는 개개인의 독특한 내면의 세계(Wolf, 2003)를 뜻하며 아동의 초기 도덕적, 정서적 구조에 대해 방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Holmberg, Robinson, Corbitt-Price, & Wiener, 2007).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제로 밝혀짐으로써(Burks & Parke, 1996; 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Solomon, & George, 1999; Shields, Ryan, & Cicchetti, 2001) 위탁 아동의 정신적인 내적 표상은 추후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뿐 아니라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위탁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응과 정서적·행동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탁 가정의 아동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로는 낮은 자아 존중감(김경민, 정익중, 2009), 소속감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Leathers, 2003), 열등감(Fanshel & Shin, 1978) 등이 보고되었으며, 행동적인 문제로는 공격성(Cicchetti & Toth, 1995), 비행 및 학교 부적응 문제(Colette, 1996),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김경민, 정익중, 2009), 절도(Mcauley, 1996) 등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아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국의 일반가정 위탁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 중 34.9%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27.0%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23.1%가 감정변화가 급격하며, 21.1%가 자주 울고, 21.1%가 사람을 잘 속이며, 위탁 아동은 심리, 정서적 후유증으로 인해 적응상

의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이혁구, 2007).

정신적 표상과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이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한 경우, 정서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Zimmermann, 1999),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Oppenheim, et al., 1997). 또한 이야기 갈등에 대한 긍정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기 조절과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친사회적으로 관계를 표상한 아동들은 부모와 교사에 의해 좀 더 협력적이고, 즐거우며, 자율적이어서 정서 조절능력이 우수하며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안정적이었다(Laible, Carlo, Torquati, & Ontai, 2004). 반면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한 경우에는 여러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Solomon et al., 1999), 정서적으로 조절이 미숙하여(Zimmermann, 1999) 그 결과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Shields et al., 2001) 정신적 표상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이 아동 발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조절은 행동 문제나 정신 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 결과, 부정적 정서를 과도하게 조절하거나 잘 조절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행동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이후 청소년기의 정신 병리를 예측함이 입증되었다(Eisenberg, Champion, & Ma, 2004). 특히 아동기는 영아기부터 시작된 정서조절 방법이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아동의 정서조절은 청소년기, 성인기의 정서조절과 정서 발달의 밑바탕이 되므로(임희수, 2001)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의 추후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아동의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낮은 장소와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협력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며(노서연, 2003), 사회적 지식과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이 저조하고(Katz & Maclellan, 1997),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고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Fabes, Eisenberg, Karbon, Carlo, Schaller, & Miller, 1991)으로 나타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내재화된 행동 문제와 외현화된 행동 문제를 함께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Fabe, B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반면,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쾌활하며, 공격 행동이 적고,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Gottman, 1983), 아동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적이고 자신과 다른 아동의 욕구의 조화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또래 유능성이 높고 교사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abes, Eisenberg, Karbon, Carlo, Schaller, & Miller, 1991).

그러므로 위탁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경험 속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형태나 그 정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은 이 아동들의 추후 행동·사

회성 문제를 예견하고 이를 통해 겪는 정서적·행동 문제를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주요 근거 자료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 위탁 아동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3세경이 되면 내적 표상을 사용하여 개념적으로 지식을 조직하고, 내적 세계에 대한 인과적 진술을 할 수 있으며(Bretherton, 1999), 사고와 감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인지·언어 능력의 발달로 상징적 표상을 통한 내적실행모델의 추론이 가능해진다(이경숙, 정석진, 신의진, 2003). 아동의 내적 표상을 측정하는 심리 측정 방법에는 아동용 문장완성 검사, 그림을 통한 투사 검사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검사와 투사검사를 결합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검사는 비교적 최근에 체계적 측정방법을 갖춘 검사로 모의 보고서 교사 보고서에 의존하였던 것에 벗어나 아동 스스로가 이야기를 꾸미며 내적 표상을 나타냄으로써 아동의 개별적인 심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도 일반군과 임상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유영미, 이영, 2001; 이경숙 외, 2003;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04; 민성혜, 2006; 우주영, 이경숙, 신의진, 2006;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8).

한편 위탁 아동의 연령은 위탁 가정에 배치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서와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허남순, 2003), 만 7세 이전의 경우 아동의 발달상에서 새로운 가정에서도 적응력이 높은 편이나 만 9세 이후에는 위탁 가정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위탁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보고되었다(김은정, 2007).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점차 국내 위탁연구의 방향이 개인 내적 요인의 탐색으로 가야하는 시점에서 위탁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면대면 질적 평가 연구는 위탁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세분화해서 알 수 있고, 임상적 개입 방향의 설정에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검사를 통하여 내적 표상의 발달적 특성과 역기능적 정서 조절을 알아보고, 일반 아동과 다른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내적 표상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을 설정하여 이러한 변인에 따른 위탁 아동의 내적 표상 주제와 역기능적 정서 조절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만 5-8세 된 위탁 아동 25명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5-8세 된 일반 아동 25명으로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인 이야기 꾸미기 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의 실시가 가능한 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탁 아동 선정은 우선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 2곳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후,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대상연령의 각 위탁가정으로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아동 선정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후, 가정으로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일반 아동의 경우 선정된 대상 아동들에게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수치 기준점(cur-off) 이하로 보고된 아동을 최종 일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인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 실시에는 인지적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적기능과 언어발달 정도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K-WISC III, KEDI-WISC, K-WPPSI)를 실시하여 전체 지능이 90이하인 위탁 아동 1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전체 지능이 90이상인 아동 5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경우 총 25명 중 남아 11명(44.0%), 여아 14명(56.0%)이고, 일반 아동의 경우 총 25명 중 남아 11명(44.0%), 여아 14명(56.0%)로 전체적으로 여아가 더 많았다.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만 5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이었고 전체 아동의 평균 연령은 6세 8개월 이었다. 위탁아동의 경우 만 5세 아동이 4명(16.0%), 만 6세 아동이 8명(32.0%), 만 7세 아동이 10명(40.0%), 만 8세 아동이 3명(12.0%)이었고, 일반 아동의 경우 만 5세 아동이 4명(16.0%), 만 6세 아동이 11명(44.0%), 만 7세 아동이 9명(36.0%), 만 8세 아동이 1명(4.0%)이었다. 전체 지능을 살펴보면, 위탁 아동의 경우 평균 전체 지능은 107로 90에서 109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이 15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110에서 119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은 6명(24.0%)이고, 120 이상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은 4명(16.0%)이었다. 일반 아동의 경우 평균 전체 지능은

111로 90에서 109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이 13명(52.0%)로 가장 많았고, 110에서 119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이 4명(16.05%)이고, 120 이상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은 8명 (32.0%)이었다. 위탁아동의 경우 위탁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위탁이 18명(72.0%), 친인척가정위탁이 7명(28.0%)로 일반가정위탁의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를 이해란, 신의진, 이경숙(199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형놀이를 통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검사로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인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 갈등, 친구와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3개의 에피소드와 warming-up 에피소드, 종결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에게 각 상황의 에피소드를 진행자가 인형을 가지고 제시한 후 아동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으로 아동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동안 아동의 이야기 주제와 아동이 보이는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토대로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과 Tampere Clinical Coding Manual 척도에 근거한 내적 표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진행자는 검사 실시를 위해 거실장, 부엌 및 식탁 세트, 자동차, 가게 진열장 등의 소품과 아빠 인형, 엄마 인형, 동생 인형(남동생 인형, 여동생 인형), 할머니 인형, 친구 인형, 가게 점원

인형, 강아지 인형,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자아이 인형과 여자아이 인형을 준비한다. 인형은 실제와 비슷하며 세워지거나 구부러질 수 있는 것이고, 인형과 가구의 위치와 방향을 실시 지침에 따라 제시한다. 진행자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후 아동이 뒤를 이어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안내하고 가족 인형들을 소개한 후 워밍업 에피소드를 제시한다. warming-up 에피소드는 분석하지 않는 이야기로 아동이 제시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형을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극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제시한다. 진행자는 지침에 따라 각 이야기 상황을 제시한 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며, 후 아동이 진행자의 이야기 제시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 후에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질문하여 아동의 이야기를 끝낸다. 또한 마지막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질문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적 표상은 Robinson 등과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이 개발한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Robinson, Mantz-Simmons, Macfie, &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1995)과 Tampere Clinical Coding Manual(Reija Latva, Ilona Luoma, Raili Salmenlin, Tarja Sorvali, JoAnn Robinson, & Palvi Kaukonen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y Tampere University Hospital, 2009)에 따라 분석하였다. 모든 실시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 및 전사되었으며, 아동이 이야기 꾸미기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보이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전사된 자료를 토대로 위 두 가지 메뉴얼에 근거하여 평정하였다. 평가는 크게 이야기 내용(content theme), 아동의 감

정 반응(emotional reaction),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parental representation)의 세 부분으로 평가한다. 각 이야기 내용에는 하위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들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0, 1, 2 점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는 0(없다), 1(있다) 점의 채점 체계로 구분되어진다. 매뉴얼에는 0, 1, 2 점의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기술되어져 있으며, 훈련을 거친 평정자가 그 기준에 맞게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내적 표상 일관성은 아동이 이야기 줄거리에 대해 반응할 때 어느 정도로 사건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정교한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이 없으면 0점, 일관성이 없으면 1점,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면 2점, 일관성이 있으면 3점으로 평가된다. MSSB의 세부적인 항목은 부록에 기술되어져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평정자간 신뢰도 Cohen의 Kappa계수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α)는 .71로 나타났다.

MSSB 정서조절 평정 척도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인형놀이를 통한 이야기 완성 검사(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를 제시한 뒤, 박진아, 정문자(2007)가 번안한 Fonagy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rm-up 에피소드를 제외한 쏟아진 주스(Spilled Juice), 엄마의 두통(Mom's Headache), 뜨거운 국(Hot Gravy), 사탕 훔치기(Stealing Candy), 출발-재결합(Departure/Reunion) 총 5개의 에피소드를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이상 다섯 개의 에피소드가 특히 부모 자녀관계, 도덕적 딜레마 등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

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선별하였다. Fonagy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MSSB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관찰 측정하는 척도이며, 과잉 억제(down-regulation), 과장 표현(exaggeration), 정서조절 실패(failure of regulation)의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정서적·행동적·인지적 반응 측면에서 상황적 맥락에 맞도록 통제하거나 조율하지 못하고 극단적 방식, 즉 과잉 억제나 과장 표현 및 정서조절 실패의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정서적 반응은 아동의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 제스처 등을 관찰하면서 부정적 정서표현의 강도와 유연성 및 맥락적 적절성을 관찰 측정하였다. 행동적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보이는 맥락에 부적절한 행동특성을 관찰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반응은 아동이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대처하는지를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각 하위영역에 대해 1점에서 12점에 이르는 행동특성이 명시된 기술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많이 보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α)는 .83으로 양호한 편이다.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가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언어표현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적기능과 언어발달 정도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

(K-WISC-III, KEDI-WISC, K-WPPSI)를 실시하였다. K-WISC-III는 광금주, 박혜원, 김청택(2002)이 표준화한 것으로 6세부터 16세 11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검사는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빠진 곳 찾기, 기호 쓰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의 열 개의 영역을 토대로 각 소 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전체 지능을 산출하였다. KEDI-WISC는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기호쓰기의 열 개의 영역을 토대로 각 소 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전체 지능을 산출하였다. K-WPPSI는 박혜원, 광금주,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것으로 이 검사는 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 모양 맞추기, 도형, 토막 짜기, 미로, 빠진 곳 찾기의 열 개의 영역을 토대로 각 소 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전체 지능을 산출하였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일반 아동 선별을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해련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보호자 평정용(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는 크게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사회성, 학업 수행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119개의 문제행동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성 문제, 정서불안정)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척도를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α)는 .62에서 .8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 동의한 위탁 아동은 위탁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였고, 일반 아동은 서울에 위치한 S영유아아동발달센터에 방문한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질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아동에게는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와 MacArthur Story-Sem Battery(MSSB)를 실시하였다. MacArthur Story-Sem Battery(MSSB)의 실시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MacArthur Story-Sem Battery(MSSB)의 분석 과정은 각 아동별 평균 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실시와 분석은 본 도구의 원저자들인 MacArthur Narrative Group 중 한 명인 Dr.Robinson에게 훈련을 받은 아동학자 1인과 임상심리학자 1인으로부터 30시간 이상 이 도구에 대한 훈련을 받은 아동 상담 전공 석사과정 수료자 1인이 수행하였다. MacArthur Story-Sem Battery(MSSB) 분석 자격을 갖춘 아동학자 1인과 앞서의 아동상담 전공 석사과정 수료자 1인 간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pearson 계수(r)=.87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내적표상의 주제, 일관성,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은 χ^2 (Chi

표 1.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동질성 검정

	위탁아동	일반아동	t검정	유의도 (양측)
	M(SD)	M(SD)		
연령	6.53(0.92)	6.34(0.78)	0.798	.429
전체 지능지수	107.60(11.63)	111.16(13.79)	-0.986	.329
문제행동 점수	44.3750(8.56801)	43.7200(7.89261)	0.200	.843

표 2.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동질성 검정

성별	위탁아동	일반아동	계	X ²
	빈도(%)	빈도(%)	빈도(%)	
남자	11(44)	11(44)	22(44)	1.000
여자	14(56)	14(56)	28(56)	
계	25(100.0)	25(100.0)	50(100.0)	

square), 연령, 전체 지능, 문제행동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상 집단 및 비교 집단의 아동의 성별, 연령, 전체 지능, 문제행동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문제행동 점수의 경우, 위탁 아동 부모로부터의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한 위탁 아동 8명과 일반 아동 전체를 비교하였다.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구성이 동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2).

결 과

위탁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신적 표상 주제 비교

내적표상 주제에 대한 위탁과 성별, 연령의 효과를 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공감적 관계에 대한 주제는 위탁 여부

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조직화된 공격성 주제는 위탁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공감적 관계에 대한 주제는 더 적게 보였고(위탁 아동=3.04, 일반 아동=4.96), 비조직화된 공격성 주제는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탁 아동=5.12, 일반 아동=2.04).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공감적 관계에 대한 주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아동=3.18, 여자 아동=4.64). 반면, 대인간 갈등, 도덕적 주제, 회피 전략, 분열 코드 주제에서는 위탁 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내적 표상 일관성의 차이 비교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내적 표상 일관

표 3. 내적 표상 주제에 대한 분류*성별*연령 효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corrected model	대인간 갈등	4.156	3	1.385	.798	.501
	공감적 관계	73.169	3	24.390	5.372	.003
	비조직화된 공격성	362.427	3	120.809	3.348	.027
	도덕적 주제	26.050	3	8.683	.406	.749
	회피 전략	9.825	3	3.275	.565	.641
	분열 코드	4.249	3	1.416	2.047	.120
intercept	대인간 갈등	62.370	1	62.370	35.924	.000
	공감적 관계	754.299	1	754.299	166.152	.000
	비조직화된 공격성	695.402	1	695.402	19.273	.000
	도덕적 주제	3954.328	1	3954.328	184.881	.000
	회피 전략	175.356	1	175.356	30.248	.000
	분열 코드	4.397	1	4.397	6.354	.015
분류	대인간 갈등	3.366	1	3.366	1.919	.170
	공감적 관계	43.990	1	43.990	9.690	.003
	비조직화된 공격성	149.245	1	149.245	4.136	.048
	도덕적 주제	.042	1	.042	.002	.965
	회피 전략	3.408	1	3.408	.588	.447
	분열 코드	1.052	1	1.052	1.520	.224
성별	대인간 갈등	.770	1	.770	.444	.509
	공감적 관계	26.299	1	26.299	5.793	.020
	비조직화된 공격성	106.602	1	106.602	2.954	.092
	도덕적 주제	23.128	1	23.128	1.081	.304
	회피 전략	.636	1	.636	.110	.742
	분열 코드	1.197	1	1.197	1.730	.195
연령	대인간 갈등	.514	1	.514	.286	.596
	공감적 관계	.913	1	.913	.190	.665
	비조직화된 공격성	23.027	1	23.027	.594	.445
	도덕적 주제	100.967	1	100.967	4.951	.032
	회피 전략	6.857	1	6.857	1.141	.292
	분열 코드	.079	1	.079	.106	.746
분류*성별	대인간 갈등	.006	1	.006	.004	.952
	공감적 관계	.790	1	.790	.174	.678
	비조직화된 공격성	137.245	1	137.245	3.804	.057
	도덕적 주제	2.922	1	2.922	.137	.713
	회피 전략	4.688	1	4.688	.809	.373
	분열 코드	2.322	1	2.332	3.370	.073

성별*연령	대인간 갈등	.514	1	.514	.286	.596
	공감적 관계	.144	1	.144	.030	.863
	비조직화된 공격성	8.162	1	8.162	.211	.649
	도덕적 주제	38.898	1	38.898	1.907	.175
	회피 전략	.458	1	.458	.076	.784
	분열 코드	.428	1	.428	.578	.451
분류*연령	대인간 갈등	3.188	1	3.188	1.744	.190
	공감적 관계	.071	1	.071	.015	.904
	비조직화된 공격성	5.338	1	5.338	.138	.712
	도덕적 주제	1.892	1	1.892	.093	.762
	회피 전략	2.066	1	2.066	.344	.561
	분열 코드	.004	1	.004	.006	.940
분류*성별*연령	대인간 갈등	.052	1	.052	.029	.866
	공감적 관계	5.878	1	5.878	1.223	.275
	비조직화된 공격성	.263	1	.263	.007	.935
	도덕적 주제	.078	1	.078	.004	.951
	회피 전략	4.353	1	4.353	.724	.400
	분열 코드	.180	1	.180	.243	.624
Error	대인간 갈등	79.864	46	1.736		
	공감적 관계	208.831	46	4.540		
	비조직화된 공격성	1659.753	46	36.082		
	도덕적 주제	983.870	46	21.388		
	회피 전략	266.675	46	5.797		
	분열 코드	31.831	46	.692		
Total	대인간 갈등	149.000	50			
	공감적 관계	1082.000	50			
	비조직화된 공격성	2663.000	50			
	도덕적 주제	5096.000	50			
	회피 전략	457.000	50			
	분열 코드	40.000	50			
Corrected Total	대인간 갈등	84.020	49			
	공감적 관계	282.000	49			
	비조직화된 공격성	2022.180	49			
	도덕적 주제	1009.920	49			
	회피 전략	276.500	49			
	분열 코드	36.080	49			

a.R 제곱=.049(수정된 R 제곱=-.013)

b.R 제곱=.259(수정된 R 제곱=.211)

c.R 제곱=.179(수정된 R 제곱=.126)

d.R 제곱=.026(수정된 R 제곱=-.038)

e.R 제곱=.036(수정된 R 제곱=-.027)

f.R 제곱=.118(수정된 R 제곱=.060)

표 4.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내적 표상 일관성에 대한 t검정

	위탁 (N=25)	일반 (N=25)	t검정	유의도 (양측)
	M(SD)	M(SD)		
일관성	18.84(2.82)	21.40(5.61)	-2.035*	.047

*p<.05

성에 대한 t검정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내적 표상 일관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차이 비교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위탁과 성별, 연령의 효과를 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5

에 정리하였다. 역기능적 정서조절 중 과잉억제에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과잉억제와 정서조절 실패에서는 위탁 여부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7년 미만인 아동이 7년 이상인 아동보다 정서를 과잉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년 미만인 아동=10.16, 7년 이상인 아동= 8.65). 위탁 아동의 경우, 연령이 7년 미만인 위탁 아동이 7년 이상인 위탁 아동보

표 5.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분류*성별*연령 효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corrected model	과잉억제	469.513	14	33.537	2.352	.020
	과장표현	245.297	14	17.521	.751	.711
	정서조절 실패	640.113	14	45.722	2.175	.031
intercept	과잉억제	3620.123	1	3620.123	253.933	.000
	과장표현	1849.241	1	1849.241	79.271	.000
	정서조절 실패	2553.997	1	2553.997	121.509	.000
분류	과잉억제	29.216	1	29.216	2.049	.161
	과장표현	.034	1	.034	.001	.970
	정서조절 실패	5.868	1	5.868	.279	.601
성별	과잉억제	5.289	1	5.289	.371	.546
	과장표현	12.812	1	12.812	.549	.464
	정서조절 실패	45.834	1	45.834	2.181	.149
연령	과잉억제	214.841	3	71.614	5.023	.005
	과장표현	104.233	3	34.744	1.489	.234
	정서조절 실패	84.501	3	28.167	1.340	.277

분류*성별	과잉억제	4.253	1	4.253	.298	.588
	과장표현	.367	1	.367	.016	.901
	정서조절 실패	2.785	1	2.785	.132	.718
성별*연령	과잉억제	41.385	3	13.786	.967	.419
	과장표현	73.330	3	24.443	1.048	.384
	정서조절 실패	15.949	3	5.316	.253	.859
분류*연령	과잉억제	193.646	3	64.549	4.528	.009
	과장표현	24.706	3	8.235	.353	.787
	정서조절 실패	223.289	3	74.430	3.541	.024
분류*성별*연령	과잉억제	9.587	2	4.794	.336	.717
	과장표현	21.668	2	10.834	.464	.632
	정서조절 실패	38.665	2	19.333	.920	.408
Error	과잉억제	498.967	35	14.256		
	과장표현	816.483	35	23.328		
	정서조절 실패	735.667	35	21.019		
Total	과잉억제	5462.000	50			
	과장표현	4573.000	50			
	정서조절 실패	5775.000	50			
Corrected Total	과잉억제	968.480	49			
	과장표현	1061.780	49			
	정서조절 실패	1375.780	49			

a.R 제곱=.485(수정된 R 제곱=.279)

b.R 제곱=.231(수정된 R 제곱=-.077)

c.R 제곱=.465(수정된 R 제곱=.251)

다 정서를 과잉으로 억제하고(7년 미만인 위탁 아동=10.66, 7년 이상인 위탁 아동=9.30) 정서조절을 실패하는 것(7년 미만인 위탁 아동=13.41, 7년 이상인 위탁 아동=8.00)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장 표현과 정서조절 실패에서는 위탁여부 및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논 의

본 연구는 위탁 아동의 일반 아동의 내적 표상 및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비교하고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른 내적 표상 주제와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비교함으로써 위탁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첫째,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내적 표상 주제를 비교한 결과, 공감적 관계, 비조직화된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공감적 관계 주제는 더 적게 보였고, 비조직화된 공격성 주제는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아동은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하룻밤 자고 집에 돌아오며) 애들이 잘 지냈니?”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희진이가 바니를 잃어버렸다고 슬피하며 엄마에게 말하자) 괜찮아. 우리 같이 마을에 가서 찾아보자”, “(희진이가 바니를 꼭 안았어요)”, “(영수와 동생이 축구하며)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땀 흘려서 목욕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다 넘어지자) 희진아 괜찮니? 애 좀 업어줘요. (아빠가 희진을 업으며) 으쌰” 등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두 인물 이상이 함께 활동하는 행동,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 애정을 표현하는 공감적 관계 주제의 내적 표상이 많았다. 반면 위탁 아동은 “(엄마가 혼내며) 야, 너 왜 앞지러? (라고하면서) 차버려서 쫓겨나요. 그때 엄마가 딱 보고 걱정도 안 해주고 그냥 가족들이 그냥 막막 마셨어요”, “(엄마가 희진을 때리며) 때져 때져 그랬어요”, “(엄마가 발로 TV를 차며) 야, 시끄러워, 하지마. 그 다음에요. 영수가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가 엄마를 발로 차며) 야. 텔레비켜. 못된 사람아.”, “(할머니랑 영수가 싸우며) 할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타타탁. (영수와 동생이 함께 할머니를 때리며) 합체해갖고 애가 심장을 빼먹었어. 폭” 등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조직화된 공격성, 아동이 성인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 죽음, 대인 간 갈등의 확대, 개인적 상해, 비전형적 반응 등 공격적인 주제를 더 많이 표현하였으며, 몇몇 아동들은 이야기의 맥락과 상관없는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전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표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 아동들이 일반 아동보다 타인 마음 공감 능력과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정적 표상을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민성혜, 신혜원, 2006; 신혜원, 민성혜, 2008)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위탁 아동이 공격성(Cicchetti & Toth, 1995), 파괴적 행동(김경민, 정익중, 2009)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 위탁 아동이 비조직화된 공격성을 보이는 점은 위탁 아동이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아동이 자신이 가진 부정적 표상을 비조직 공격성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Cassidy & Kobak, 1988; Oppenheim et al, 1997)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 동안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과거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통해 내적 표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Bretherton, 1999; Zimmermann, 1999)를 고려할 때, 위탁 아동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내적 표상 요인에 반드시 중점을 두어야 한다. 추후 위탁 아동에게 발생하는 문제 행동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예방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안할 수 있다.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성별에 따른 내적 표상 주제를 비교한 결과, 일반 아동은 공감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일반 아동이 남자 일반 아동보다 공감적 관계에 대한 주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Oppenheim et al,

1997).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공감적 관심을 더 보이고(임경민, 2005),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민성혜, 2006)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적 관계에 대한 주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위탁 아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타인에 대한 마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민성혜, 신혜원, 2006; 신혜원, 민성혜, 2008) 위탁 환경이라는 포괄적인 환경이 이 시기의 일반적인 남녀 차이를 배제시킬 만큼 공감적 정서 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위해적 환경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남자 위탁 아동은 여자 위탁 아동 보다 비조직화된 공격성의 주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며 외향적인 성향(박진아, 정문자, 2007)으로 인하여 내적 표상 주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가 적어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로 성별에 따른 내적 표상의 유의미성에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내적 표상 일관성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내적 표상 일관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아동이 구술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영수가 밀어서 동생이 다칩) 재가 광. 동생이 다쳤어요. 엄마까지. 어 아빠랑 엄마가 뽀뽀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영수가 이렇게 했어요. 야 빵. 차버렸어요. 이렇게 차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사이가 좋게 됐어요.”, “엄청 맛있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덜

됐는데 가스 불이 다 나갔어요. 동생이 가짜로 여기에(싱크대 안) 간혔어요. 그리고 애는 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폭 하고 끊었어요. 애기 타서 애기가 나왔어요. 에이 아아아 기절했어요. 이거 자기가 끄게 해놓고 그리고 물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대포를 만들어 줬어요. 아니, 우주선을 만들어 줬어요.” 등과 같이 이야기 맥락에 일관성이 없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정서적 갈등 상황에서 더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구술한다는 결과(Sher-Censor & Oppenheim, 2004)와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 형성이 다소 어려운 위탁 아동은 대인간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과 관련이 있는 내적 표상 일관성에서 일반 아동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관련지어 보았을 때 위탁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문제를 예견하게 한다.

셋째,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하는지에 대해 비교한 결과, 정서조절의 실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조절을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아동은 전반적으로 이야기 꾸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딜레마 갈등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딜레마 상황 이후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고 자유롭게 꾸미는 특성이 있었다. 반면 위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서 표현의 변화가 빈번한 편이며 상황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얼굴 표정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내며) 영수야 (아동이 웃음) 왜 먹었는데 왜 또 먹었니! (영수가 말하며) 엄마 또 먹고 싶어요.”, “(주방 가구들을 무너뜨리며) 여기 빵하고 빵하고 빵했어. (아동이 웃으며) 헤헛 웃기다. 웃기다.”, “(아빠가 공에 맞아

쓰러짐)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동이 웃으며)히히히” 등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왜, 안 돼! 동생 끼워줘야지.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동생을 끼워줬어요. 하는데 동생이 멀리 차버려서 공이 사라졌어요”, “어 들 어왔어요. 어 그다음 뭐였더라. (아동이 머리 두들기며) 모르겠어요. 봤어요. 틀었어요. TV 를 봤어요.”, “흘러서요. 희진이가 그냥 닦아 요. 몰라요. 모르겠다.” 등과 같이 검사를 지 루해하고 중단하고 싶은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며 이야기를 매우 짧게 끝내거나 이야기 흐름에 일관성이 없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가족 해체를 경험한 아동이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연구 결과 (Robinson & Mantz-Simmons, 2003)와 일치하며, 위탁 아동이 감정 변화가 급격한 문제가 있다는 중앙아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위탁 아동이 자신의 갑작스러운 경험에 대해 일관적으로 정서적 갈등을 해결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비교한 결과, 위탁 아동이 정서조절 실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6세 위탁 아동이 7~8세 위탁 아동보다 정서조절을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을 더 잘 하게 된다는 Denham과 Couchoud(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를 아동이 적절하게 언어화시켜 표현하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주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 아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민성혜, 신혜원, 2006; 신혜원, 민성혜, 2008)를 유념하면서 어린시기에 일찍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차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는 대상 선정에 있어 지역적, 연령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표집수가 작아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집단에 일반화 하는 것에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표집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표상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위탁 아동의 성별, 연령만 설정하여 위탁 아동의 포괄적인 심리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환경, 아동, 부모 변인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내적 표상의 분석에 사용한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과 Tampere Clinical Coding Manual에서는 부호화되지 않았으나, 그 외에 위탁 아동의 내적 표상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적 표상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내적 표상의 편차가 컸으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진 몇몇의 아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적 표

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위탁 아동에 관한 양적 연구들의 외부 관찰자에 의한 평정척도나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형태가 아닌 위탁 아동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내적 표상의 주요한 주제와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위탁 아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위탁 아동의 내적 표상과 정서조절능력이 위탁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문제해결 및 예방적 차원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2).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K - WISC - III)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9-33.
- 곽연숙 (2007).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환경과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 정익중 (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5, 93-119.
- 김민정 (2007). 위탁가정 특성, 위탁가정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위탁아동 특성에 따른 위탁부모의 양육 효능감. *한국가족복지학*, 12(2), 109-127.
- 김민정 (2008).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13(4), 145-159.
- 김윤미, 이경숙, 박진아, 이권희, 진미경 (2008). 위탁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5(3), 63-87.
- 김은정, 김형모 (2010). 가족 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4(4), 633-655.
- 김진숙 (2007).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 접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숙, 이혁구 (2007).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9(1), 87-116.
- 노서연 (2003).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 (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238-264.
- 민성혜 (2006). 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성혜, 신혜원 (2006).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를 통한 내적 표상의 차이. *한국아동복지학회*, 22, 31-61.
- 민윤희 (2010). 미술치료가 위탁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1(1), 19-32.
- 박진아, 정문자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19(2), 273-295.
- 박현선 (2004).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65, 18-20.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1995).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213-221.

- 배태순 (2003). 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현황과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방안. *경남지역연구*, 8, 187-204.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 신건철 (2010). 일반위탁부모의 위탁해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4(1), 59-84.
- 신혜원, 민성혜 (2008). 가정위탁유아, 연장입양유아와 일반유아의 내적표상에서의 차이. *아동학회지*, 29(3), 157-174.
- 양심영 (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우주영, 이경숙, 신의진 (2006). 성학대 유아의 정신적 표상: 정서문제, 행동 문제, 일반유아와의 비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22(2), 173-201.
- 유영미, 이 영 (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4(1), 63-74.
-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04). 임상 유아의 정신적 표상에 관한 연구: 이야기 꾸미기 (MSSB) 도구의 임상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 337-338.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8). 정신적 표상에 대한 임상적 접근; Asperger 아동의 정신적 표상-MSSB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500-501.
- 이경숙, 정석진, 신의진 (2003). 학령전기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 표상 차이. *한국심리학회*, 16(2), 71-86.
- 이송이 (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4(2), 43-62.
- 이혜란, 신의진, 이경숙 (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 표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0(1), 21-33.
- 이혜영, 이혜원 (2011).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가정위탁보호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 151-174.
- 임경민 (2005). 유아의 나레이티브 표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0).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최 영 (2007).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61-90.
- 허남순 (2000).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1), 263-287.
- 허남순, 이혜원 (2006).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2, 95-126.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9). Updating the 'internal working model' construct: some reflection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 343-357.
- Burks V., & Parke, R. D. (1996). Parent and child representa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Linkage between and peers. *Merrill-Palmer*

- Quarterly*, 42, 358-378.
-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302-322.
- Cicchetti, D. & S. L. Toth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Colette McAuley. (1996).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mendeley. com.
- Denham, S. A.,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Study Journal*, 20(3), 193-202.
- Eisenberg, N., Champion, C & Ma Y.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An emerging construct.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36-259.
- Eisenberg, N., Faber, R. A., B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Faber, R., Eisenberg, N., Karbon, M., Carlo, G., Schaller, M., & Miller, P.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 Fanshel, D. & E. B. Shinn (1978). Children in Foster Car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olumbia University.
- Fonagy, P., & Target, M. (2000). *Revised Manual for MacArthur Narrative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3), 1-82.
- Holmberg, J., Robinson, J., Corbitt-Price, J., & Wiener, P. (2007). Using narrative to assess competencies and risks in young children: Experiences with high risk and normal popul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8, 647-666.
- Katz, L. G., & McC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 C.: NAEYC.
- Kochanska, G., & Coy, K. C. (2002). Child emotionali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as predictors of reunion behaviors in the strange situation: Links mediated and unmediated by separation distress. *Child Development*, 73, 228-240.
- Laible, D., Carlo, G. Torquati, J., & Ontai, L.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s assessed in a doll story completion task: Links to parenting, social competence, and externalizing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3, 551-569.
- Leathers, S. J. (2003). Parental visiting, conflicting allegiance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foster children. *Family Relation*, 52(1), 53-64.
- McAuley, C. (1996).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London: Athenaeum Press.
- Oppenheim, D., Emde, R. N., & Warren, S. (1997).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 in mother adaptation. *Child development*, 68,

- 127-138.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 Plotnick, R. D.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2nd ed.)*. Newyork: Aldine de Gruyter.
- Reija Latva., Ilona Luoma., Raili Salmenlin., Tarja Sorvali., JoAnn Robinson., & Palvi Kaukonen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y Tampere University Hospital. (2009).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Tampere Clinical Coding Manual*.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y, Tampere University Hospital, Finland.
- Robinson, J., Mantz-Simmons, L, Macfie, J., &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1995). Narrative Coding Manual. Unpublished Scoring System. University of Colorado Health Science Center, Denver, Co.
- Robinson, J., Mantz-Simmons, L. (2003).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One approach to highlighting affective meaning making in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J., Mantz-Simmons, L, Macfie, J., Kelsay, K., Holmberg, J., &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2004).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 Unpublished maun script.
- Saam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her-Censor, E., Oppenheim, D. (2004). Coherence and representations in preschoolers' narrative: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in infancy. In M. W. Pratt & B.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s: Across Time and Generations*. NJ: Erlbaum.
- Shields, Ann., Ryan, Richard M. & Cicchetti, Dante. (2001).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caregivers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predictors of maltreated children's rejection by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321-337.
- Solomon, J., & George, C. (Eds.) (1999). *Attachment disorganization*. NewYork: Guilford.
- Weinberg. K. M.,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75-188.
- Wolf, D. P. (2003). Making meaning from emotional experience in early narrative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immermann, P. (1999). Structure and functions of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their role for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3), 291-306.

논문 투고일 : 2012. 10. 15

1 차 심사일 : 2012. 10. 22

게재 확정일 : 2013. 08. 25

The Comparative Study on Mental Representation between Foster-care and Typical Children

Min Jung Go

Kyung Sook Lee

Yun Mi Kim

In Ae Choi

Hanshin University

Sewon Infant Child Development Center

The study examin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children in foster care through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 and reviewed difference between children in foster care and typical children in terms of mental representation.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50 children: 25 children (11 boys and 14 girls), aged from 5 to 8, in foster care in Gyeonggi Province, and 25 typical children (11 boys and 14 girls), aged from 5 to 8, who liv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mental representation, children in foster care showed less subjects of empathic relations and more subjects of disorganized aggression than typical children. Second, children in foster care showed lower coherence mental representation than typical children. Finally, children in foster care were more likely to fail in emotional regulation than typical children in mental representation.

Key words : foster-care, internal representation, emotional regulation, MSSB

부 록

MSSB coding 체계

내적 표상 주제	하위 항목	
대인간 갈등	경쟁	
	라이벌/ 질투	
	타인 배제	
	공감/ 도움의 적극적 거부	
	언어적 갈등	
	삼각관계	
공감적 관계	공유	
	공감/ 도움/ 안심	
	제휴	
	애정	
비조직화된 공격성	공격성	
	대인간 갈등의 확대	
	개인적 상해	
	비전형적 반응	
	성적 행동	
도덕적 주제	갈등해결	
	순응	
	불순응	
	수치심	
	비난	
	놀리기/ 조롱하기	
	비정직	
	차별/ 혼욕/ 성숙요구	
	보상/ 죄의식	
	예의바름	
	안전	
	회피 전략	자기배제
		반복
부정		
공감/ 도움의 수동적 거부		
갑작스러운 수면		
가족 붕괴		
주제이탈놀이		
분열 코드	외상적인 사건의 침입	
	환상적 경향	
	몽환	
	몰입/ 경계혼란	
	고통스런 주제에서 벗어나기	
	공격자와의 동일시	